

# 濟州地域 說話 文學의 比較 研究\*

蘇 在 英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아기장수 설화(洪業善型)   |
| 2. 선문대할망(雪曼頭) 과<br>한라산 설화 | 5. 오늬 힘내기 설화(吳察訪型) |
| 3. 고종달 설화 (胡宗旦型)          | 6. 뱀 숭배 설화 (蛇神信仰)  |
|                           | 7. 풍수신앙 설화 (高典籍型)  |
|                           | 8. 맺는말             |

## 1. 머리말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서 지역으로 설화문학의 보고이기도 하다. 육지의 설화와 도서 지역의 설화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한편,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한반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오랜 동안 독립국으로 존재하여 오다가 몽고(원)를 거쳐 조선조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그러는 동안 이들 나라뿐 아니라 이웃해 있는 유구·일본·안남·중국 등의 나라와는

\* 이 논문은 94학년도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수로 교통을 통하여 설화의 다양한 유동 변이현상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

제주지역 설화를 눈여겨 살펴 보면 먼저 육지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강한 배타적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 제주는 예부터 토양이 척박하여 열악한 자연 환경과 싸우며 농업·어업 목축업 등에 종사해 오는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해 가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연 독립적 투쟁적 설화들이 많이 배태되었다

한편, 문화적으로 보면 남성 문화보다는 여성 문화의 우월성이 엿보이며, 지리적 기상적 조건과 싸워 나가자니 자연 영웅설화나 장수설화가 많이 배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환경에 순응할 때보다 저항적 도전적 상황에 처하면 쉽게 비현실적 신앙적 요소에 집착을 보이기 쉬운데, 제주의 허다한 풍수설화나 무속적 사신신앙 등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제 설화들을 포괄하는 제주도민들의 의식 상층부에는 민족의 영산 한라산과 거인 선문대할망 같은 지배신화가 의식 내면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어, 먼저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설화는 특정지역의 단순한 작품에서보다는 이와 유사한 인근지역 내지 도서지역이나 내륙 또는 주변국 설화와의 상호 비교 검토를 통하여서만 그 특수성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가급적 제주설화를 상호 비교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가 계획하고 있는 제주지역 설화의 분류작업은 이미 완성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지역 설화의 특징을 비교론적 측면에서 밝히려는 작업이므로 먼저 본론에서 그 대표적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 검증작업을 하고자 한다.

## 2. 선문대할망(雪曼頭)과 한라산 설화

제주도는 타원형의 지형에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촌락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특히 한라산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설화를 집약하는 인물설화로 <선문대할망>을 들 수가 있다. <선문대할망>은 <설문대할망>, <설명두할망>, <세명뒤할망>, <雪曼頭>로 나타나기도 하고 담수계 편의 《탐라지》에는 <雪慢頭姑>로 표기되어 있다. 선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다리가 관탈섬에 걸렸을 정도의 거인이었다고 한다. 빨래를 할 때면 빨래를 관탈섬에 놓아 발로 밟고 한라산 꼭대기를 손으로 짚고 서서 빨래를 문질러 빨았다고 한다. 또 한라산을 깔고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을 디디고 다른 한쪽 다리는 서귀포 지귀섬(또는 마라도)을 디디고 성산 일출봉을 구시통(바구니)으로 삼고 우도를 팡들(빨래들)로 삼아 빨래를 했다고도 한다. 그 선문대할망이 흙을 파서 삽으로 일곱 번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고 나막신에서 떨어진 흙덩이들이 수많은 오름이 되었다고도 한다. 또 치마폭으로 흙을 싸서 담아 쏟아 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고, 동시에 치마폭의 뚫어진 구멍에서 쏟아진 흙들이 도내에 무수히 산재한 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선문대할망은 키가 너무 커서 옷을 제대로 해 입을 수가 없었는데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속옷을 만드는 데는 명주 백 통(한 통이 50필)이 필요하므로 제주 백성들이 힘껏 모아도 겨우 99통밖에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선문대할망은 결국 다리를 놓다가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 놓다 만 다리의 줄기(바위)가 조천리·신촌리 앞 마을에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한다.<sup>1)</sup> 또 속옷 대

1) 秦聖麒, 《南國의 傳說》, 一志社, 1968. <설문대할망>  
 玄容駿, 《濟州島 傳說》, 瑞文堂, 1976. <설문대할망>  
 玄容駿 外, 《濟州說話 集成》, 耽羅文化研究所, 1985., <설문대할망과 선문대하르방>

신 갈증이(작업복 바지) 하나만 지어 주면 다리를 놓겠다고 했으나 제주 백성들이 무명 한 필씩을 모아도 가랭이(가달) 한 쪽밖에 만들지 못하여 육지에 잇대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작업을 하다 남은 흔적이 모슬포 앞 바다의 알뜨르곶(岬)이라고도 하며, 한림 앞바다의 곶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한편 선문대할망은 지형유래설화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할망이 한라산을 베고 잘못 누워 발을 찬 흔적이 서귀포 법환리 섬의 커다란 두 동굴로 남아 있으며, 그녀가 솔을 걸어 놓고 밥을 짓던 흔적이 구좌면 송당리 들판의 세 바위덩이라고도 하고 있다. <선문대할망>은 제주도민의 육지에 대한 동경과 가난 때문에 육지로 잇는 뜻을 이루지 못한 꿈의 한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일설에는 한라산에 봉우리를 99개밖에 만들지 못하였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 백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주에는 왕도 호랑이도 그밖에 맹수들도 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을 잘못 쏘아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렸는데, 화가 난 옥황상제가 한라산 정상에 봉우리를 뽑아 서쪽으로 내 던진 것이 산방산이 되었으며 그 뽑힌 봉우리의 자국이 백록담이 되었다고도 한다(산방산을 뽑아 백록담에 거꾸로 없으면 한라산의 원모습이 된다고 한다). 한편, 선문대할망은 영실 오백장군봉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선문대할망은 아들 오백 형제를 낳아 한라산에서 함께 살았는데 한 해는 큰 흉년이 들어 아이들을 모두 구걸을 내 보내게 된다. 그녀는 그 많은 자식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큰 가마솥에 죽을 끓이다가 그만 실족하여 빠져 죽게 된다. 이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나 막내 아들이 알아 형들을 원망하며 뛰쳐나가 지금의 한경면 차귀섬에서 통곡하다 그만 바위가 되었는데, 이 광경을 지켜 보던 형들도 슬피 울다가 죽어 오백장군봉(정확히 499봉)이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가마솥에 빠져 죽은 것이 남편 선문대할망이

며, 가난의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선문대할망은 용연과 흥릿물을 지나 한라산의 물장오리 연못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sup>2)</sup> 제주에서 가장 큰 섬인 우도가 생긴 내력담도 흥미롭다. 원래는 제주와 우도가 이어진 땅이었는데 그녀가 눈 오줌 즐기는 힘이 너무 세차서 그만 두 섬을 갈라 놓게 되었으며, 그때 눈 그 오줌 즐기는 두 섬 사이를 흐르는 세찬 조수와 파도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그밖에 한내(한천)의 구멍 뚫린 바위가 선문대할망의 감투라든지, 성산의 묘한 겹바위가 당시 등불을 올려 놓던 등경돌이라든지, 광지의 밥 짓는 솔덕바위, 구좌의 주먹 흔적인 다랑쉬바위 등 선문대할망신화는 제주의 모든 지형물들을 설명하고 있다.<sup>3)</sup>

제주만이 지닌 특유의 이 巨人說話는 육지의 경우에도 유사화를 찾아볼 수 있으나 남성설화임이 다르다.

옛날 한 거인이 있었다. 그의 평생 소원은 한 번이라도 옷을 해 입을 것이었다. 그는 항상 나무잎으로 음부만을 가릴 정도였다. 거인은 왕에게 이 원을 호소했다. 왕도 그 청을 들어 일년간의 삼남 공포 전부를 거인에게 주었다. 그는 그것으로 옷을 해 입고 너무 좋아서 문경새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런데 삼남지방이 모두 그 옷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었다. 농사가 말이 아니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그를 추방하였다. 거인은 만주지방으로 달아났으나 배가 고파 흠을 파 먹었다. 배는 불렀으나 목이 말랐다. 그래서 바다물을 들이켰다. 그만 설사가 나 그 배설물이 우리의 강 산이 되었다고 한다.<sup>4)</sup>

여기서 보는 거인도 삼남지방의 공포 전부를 모아 옷을 해 입게 되며, 그 옷 그늘에 가리워져 곡식이 자라지 못하자 쫓겨나게 되고 배가 고파

2) 진성기, 위의 책. <오백장군>

현용준, 위의 책. <오백장군>

“한라산에 얽힌 전설과 신앙”, 『제주도』 44호, 1969. 참고.

3) 張蕪根, 《韓國의 神話》, 成文閣, 1961. <하늘과 땅이 생긴 이야기>

4) 손진태, 《조선민담집》, 향토연구사, 1930. p. 20.

흙을 파 먹다 설사가 나 그 배설물이 강과 산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선문대할망의 경우에도 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싸던 것이 현재 ‘농가물’이라는 곳에 있는<굿상망오름>이 되었다는 설화가 채록되고 있다.<sup>5)</sup> 강과 산들이 거인의 배설물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화소들은 이후 점차 외설적으로 변모되기도 한다. 거인의 성기가 너무 커서 낙동강에 다리를 놓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을 떨어뜨려 뜨거워서 움추리는 바람에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sup>6)</sup> 한라산 물장오리에 빠져 죽은 선문대할망과 비교해 보면 점차 희화화 내지 외설화해 가는 사실이 엿보인다.

천지가 혼돈하여 마치 계란과 같았는데 반고는 그 가운데서 태어나 나이는 일만팔천 살이었다 천지가 개벽하여 양은 밝아 하늘이 되었고 음은 탁하여 땅이 되었다. 반고는 그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홉 번을 변화해 하늘에서는 신이 되었고 땅에서는 성인이 되었다 하늘은 날마다 한 길씩 높아졌고 땅은 날마다 한 길씩 두터워지고 반고도 날마다 한 길씩 길어졌다. 이렇게 하여 일만팔천 살이 되었다. 반고는 아주 길어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까지 구만리나 갔다.<sup>7)</sup>

이에서 보는 창세신화의 주인공 <盤古이야기>는 중국 거인신화인데 일만팔천년 간 반고는 땅위를 정돈하고 죽어 두부는 사막이 되고 두 눈은 해와 달이 되고 그 기름은 홍해가 되고 모발은 초목이 되었다는 것이다. 선문대할망을 여기에 비길 수는 없겠으나 같은 거인설화인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거인이 하루나야마(榛名山)에 걸터 앉아 도네가와(利根川)에서 속옷을 빨았단든지, 그의 갈대발 사이로 흐른 흙들이 곳곳의 작은 산들이 되었다고 하며 관동지방에서는 대

5) 장주근 채록, 중문면 강정리 이갑순(여) 구술.

6) 장덕순, 《한국문화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p. 45. <우주론과 세계관>

7) 서 정, 《오운역년기》(태평어람 권2), <반고조>

전인초, 《중국고대소설연구》, 연세대출판부, 1985. <선진시대의 소설> 참조

太法師, 구주지방에서는 大人彌五郎이라는 남자 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구(오끼나와)에서는 아만추우(하늘 사람의 뜻)라는 거인이 보이는데, 태고에 천지가 붙어 있어서 사람이 개구리처럼 기어 다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그가 하늘을 밀어 올렸다는지 멜대 양쪽에 해와 달을 달고 매고 다녔다고 하여 선문대할망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sup>8)</sup> 그러나 선문대하르방과 선문대할망이 서로 부부가 되어 하르방의 셋놈(성기)으로 바다의 고기를 후리면 할망이 하문(음부)을 열고 바다 고기를 모두 걷어 모아 부자가 되었다는 파생설화에서 보면, 어민들의 전통적 생활과 수확의 소망을 회화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거인설화의 민담화 현상을 흥미롭게 살펴 보게 한다.<sup>9)</sup>

한편, 한라산 서쪽 어깨에서는 아홉 형제의 신들이 솟아 나와 각지의 당신으로 자리잡게 된다. 첫째는 성산 수산리, 둘째는 애월읍 수산리, 셋째는 남원읍 예촌, 넷째는 서귀포 서흥리, 다섯째는 서귀포 중문리, 여섯째는 하모리, 일곱째는 대정읍 일파리, 여덟째는 안덕면 상창리, 아홉째는 종달리의 당신으로 각각 자리잡게 된다. 당신들의 정착과정에서 보면 대개 영웅의 고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령 다섯째 경우 중문동신 동백자로하로산의 아들이 용왕의 사위가 되어 본향당에 모셔진다는지, 여덟째 남편들판 고나무상대자하로산이 적대자를 물리치고 뱀으로 변신하여 본향당에 모셔지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한라산 수호국신인 광양당신이 고종달설화와 결부되고 세화리 본향당신인 백죽도가 백록담에서 솟아나고, 호근리 본향당신인 애비국하로산또가 한라산에서 솟아났다는 무속신화에서 보면,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현실과 투쟁하면서 살아 온 제주도민들의 정신적 근원을 또한 이들 당신 좌정신화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sup>10)</sup>

8) 장주근, 앞의 책, p. 11. 참조.

9) 현용준 외, 《제주설화집성》, <선문대할망과 선문대하르방>

10) 김영돈 외, 《제주전설지》, <한라산에서 태어난 신들>

## 3. 고종달 설화 (胡宗旦型)

제주도 설화 가운데서 고종달설화만큼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작품도 드물다. ‘고종달’은 ‘胡宗旦’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호종단은 귀화인으로 원래는 송나라 복주 사람인데 태학에 들어가 상사인이 되고 뒤에 절강성에 유력한 후 상선을 타고 고려에 들어온다 예종의 사랑과 후대를 받아 좌우위녹사가 되고 보문각대제를 거쳐 기거사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탐라기년》에도 종단은 송나라 복주 사람으로 왕경에 와서 벼슬을 하여 압승지술로 왕의 총임을 받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승에 호종단이 이곳의 지기를 누른 뒤 배를 타고 돌아가다가 한라산 호국신이 매로 화하여 돛대 위를 날아가 삼시간에 돌풍이 크게 불어 종단이 탄 배를 부숴 버렸다 조정에서는 그 영이함을 포상하여 식읍을 주고 광양영으로 봉하여 해마다 향폐를 내려 제사하게 하고 본조에 와서는 본읍으로 치제케 하였다.<sup>11)</sup>

여기서 보면 한라산 호국신이 매로 화하여 호종단의 귀국을 막았으며 그 수호신을 광양당에 모셔 해마다 제사지낸다는 것이다. 지기를 누른다는 것은 제주에 인물이 나지 못하도록 해를 끼친다는 뜻이며 해를 끼치는 종단은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산신에 의해 복수의 죽음을 당하기에 이른다.

여러 갈래로 변이된 고종달설화의 주요 모티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1) 김석익, 《탐라기년》(탐라문헌록),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이원진(탐라지 작자)은 호종단이 고려에서 벼슬하다가 죽었으니 압지하러 왔다가 죽었다는 설은 믿기 어렵다고 하였다



- ① 진시황이 지리서를 보고 제주에 인물이 많이 날 것을 예언한다.
- ② 고종달을 제주에 파견하여 지맥을 끊어 버리도록 지시한다.
- ③ 제주에 들어온 고종달이 지맥을 모두 끊어 버렸으므로 이후로는 그곳에 인물이 나지 않는다.
- ④ 고종달이 귀국하려고 배가 차귀섬에 이르렀을 때 들연 한라산 수호신이 매로 화하여 배를 침몰시켜 그를 죽게 한다.<sup>12)</sup>

위에 나열한 모티프에서 보면, ①~③이 기본형이고 ④는 '차귀섬'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설화의 의미 부여를 하는 종결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용준이 채록한 《제주도전설》에 의하면 고종달이 들어온 곳은 제주 동단인 구좌면 종달리로 되어 있다. 이곳 '대머들'에는 '물징거'라는 생수가 풍부하여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고종달이 들어와 혈을 뜬 이후로는 그만 수맥이 말라 버렸다고 한다. 임석재의 채록에 의하면 고종달이 자신이 상륙한 지명 '종달리'는 이미 자신의 명성을 미리 알고 붙인 것으로 착각하고 혈에 앞서 수맥을 끊기로 하였으나 수신인 청의동자를 숨겨준 농부에게 속아 결국 '고부랑낭구행기물(화북에 있는 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술서를 찢어버리고 그곳을 떠났다고 하고 있다.<sup>13)</sup> 또 한편으로는 진시황제가 왕비를 잃고 계비를 구하던 중 제주에서 미인을 발견하고는 아내로 삼아 오백 장군을 낳게 되는데 장차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장군혈을 뜨기 위해 고종달이 파견되기도 한다. 그가 한 지혈에 꽃힌 쇠꼬챙이를 뽑자 그곳에서 피가 솟아올랐는데 이는 마혈로서 다행히 솟는 피를 멈추게 하였으므로 제주에는 말이 나뉘 조랑말만 나게 되었다는 <마혈설화>로 변이를 보이고 있다. '고부랑낭구행기물'은 서귀포 서흥리로 되어 있기도 하고(《남국의 전설》), 제주시 화북리로 된 곳도 있다.(《제주도 전설》)

12) 현용준, 앞의 책, <고종달이>. 진성기, 앞의 책, <호종단과 차귀섬>

김영돈 외, 《제주전설지》, <고종단의 단혈>

13) 任哲宰, 《韓國口傳傳說 9 (濟州道 편)》, 평민사, 1992. <고종달>

- ① 한 농부가 들판에서 밭을 갈고 있었다.
- ② 백발노인이 행기물을 가져와 길마 밑에 숨겨 달라고 애원한다.
- ③ 그 뒤 어떤 사람이 ‘고부랑나무 밑 행기물’을 찾았으나 농부는 알려주지 않는다.
- ④ 고종달은 끝내 그 물을 찾지 못하고 허황된 술서를 찢어버리고 제주를 떠난다<sup>14)</sup>

여기에서 보면 ①,②와 ③,④는 대립적 입장에 놓이는데, 결국 수신 ‘백발노인’이 농부의 도움을 받아 수혈을 뜨러 온 고종달을 따돌렸으므로 그 샘이 지금까지 남아 제주민의 요긴한 생활 용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설화가 더 발전하여 고종달이 데려 온 개가 물냄새를 맡고 길마 밑으로 다가갔으나 농부는 숨겨 놓은 점심을 탐내는 것으로 알고 그 개를 쫓아 버려 해를 면하였다는 유헬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고종달이 수맥을 끊는데 실패하고 찾은 곳은 왕후지지로 이름난 안덕면 산방산 앞 ‘용머리 해안’이었다. 고종달이 마치 바다로 향하여 굽이 치는 듯한 용의 잔등을 칼로 내리쳤더니 피가 주변에 낭자하게 흘렀는데 이후로는 제주에 왕도 장수도 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지배만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한다.<sup>15)</sup> 또 고종달이 종달리로 들어와 표선면 토산리의 거스샘 나단샘 물의 혈을 뜨려 하자 이 샘을 지키던 뱀(토산에는 뱀설화가 많다)이 밭 갈던 농부의 길마 밑으로 숨어 버린다. 그후 고종달은 그 밭까지 왔다가 결국 물을 찾지 못하고 지리서가 틀렸다 하여 불살라 버리고 그곳을 떠났다고도 하였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물이 생명과 같은 것이다. 더구나 제주땅은 화산이 분출하여 용암으로 형성되어 있는 섬이므로 샘이 귀하며 샘물이 마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종달

14) 현용준, 앞의 책, p. 44

15) 김영돈 외, 《제주도전설지》, <고종단의 단혈>

설화>는 도민과 외래 침입자의 대결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보인 샘물 보존설화는 재래자(토착민)와 침입자의 지략적 대결을 통하여 재래자의 생존적 승리를 입증한 것이며, 외래자에 대한 거부적 의식을 상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성기의 《제주도 민담》에 의하면 고종달이 제주에 입도하자 김만일(경주 김씨)이 어려서 말고삐를 물고 다녔는데 그가 압송지술에 능한 것을 알고 만일이 조상의 묘터 하나를 보아 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결국 김만일은 계란을 물으니 닭으로 부화되었다는 제주의 명혈(‘반디기 밭’·남원읍 의귀리)을 고종달에게서 묘터로 넘겨 받아 대를 이어 치부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6)</sup> 고종달이 탄 배가 침몰되었다는 ‘遮歸島’는 오늘날 돌아감을 막는다는 한자어로 씌어지고 있으나 기실 ‘蛇鬼’ 즉 사신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전술한 토산리 ‘거슨샘’, ‘나단샘’의 수신인 뱀이나 ‘광정당’ 당신인 뱀과 마찬가지로 끝 지역 수호신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라산 산신이 때로 화하여 고종달의 배를 침몰시켰다고 하였으니 산신과 차귀섬의 지역신이 함께 외래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북 행기물·서흥리 지장샘물·거슨샘·나단샘 외에 영평리 수세못·귀덕리 샘(《구비문학대계 9-2》)의 수맥 보존설화, 그리고 용머리 지맥 절단설화(《구비문학대계 9-3》) 등의 변모 과정도 고종달설화의 변형으로 흥미로운 시사라 할 수 있다. 원래는 제주가 일백 고을이었는데 중국에서 한 스님이 건너와 호랑이, 사자 등 맹수들을 한 골짜기에 몰아 넣고 꾸짖어 없앴으므로 아흔아홉 골이 된 후로는 제주에서 맹수도 인물도 나지 않게 되었다는 아흔아홉골설화도 침입자의 거부적 의식과 관련된 유사형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한편, 고종달설화가 제주인의 역사적 삶을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

16) 秦聖麒, 《南國의 民譚》, 형설출판사, 1976. 경주 이씨는 간옹 이익이 제주에 유배되어 이곳 김만일의 딸과 결혼하여 그 후손(국당공파)이 제주 호족으로 자리잡게 된다.

17) 현용준, 《제주도전설》, <홍업선>

대하여, 개인이 외부 세력에 의하여 몰락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제주에서 빼어난 인물이 조정의 시기를 받아 조상의 묘가 그들에 의해 파멸됨으로써 몰락하는 경우도 그 예가 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제주 인임을 안 조정에서는 그 인물이 저지를 위해를 두려워하여 술사를 보내어 조상의 묘를 파멸하여 버린다. 그 결과로 인물과 가문이 몰락해 버린다. 고종달설화가 침입자와 제주인 전체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후자는 제주인 개인과 육지인(또는 권력자)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다. 전자가 제주에 침입했다가 희생되는 데 대하여 후자는 육지로 출륙했다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대결의 구도는 제주라는 도서지역의 특수한 역사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제주민들의 외래자에 대한 피해의식과 자기 방어, 그리고 육지인들에 대한 경계와 거부 반응을 상징화하고 있다.<sup>18)</sup>

#### 4. 아기장수 설화 (洪業善型)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아기장수설화>의 분포는 다양하다. 제주는 작은 섬이지만 이 유형의 설화가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아기장수설화>의 모티프를 아래에 요약해 보기로 하자.

- ① 가난한 평민의 한 가정에서 아기장수가 출생한다.
- ② 그 아기장수는 자라면서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 날아 다니게 된다.

18) 현길언, “제주전설과 그 주변성”,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고종달 설화에 나타난 제주민의 의식구조”, 『한국문화인류학』 9집, 1977 참조.

- ③ 부모는 이 아이가 나중 역적이 되어 집안을 망칠까 염려하여 미리 죽여 버린다.
- ④ 관군이 아기장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다시 살아나려 하므로 거둬 죽이게 된다.
- ⑤ 그후 용마가 나와서 주인을 찾아 올다가 또한 함께 따라 죽게 된다.

위의 ①~②에서 보면 아기장수는 대개 신분이 미천하거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우연히 날개가 돌리게 되며, ③에서는 부모가 다가올 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식을 미리 죽이게 된다. ④는 관군의 개입으로 관의 확인 과정을 거쳐 되살아나려는 것을 다시 죽이는 잔인성을 보이게 되며, ⑤에서는 영웅의 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마가 태어나나 곧 주인의 죽음을 알고 따라 죽게 된다는 비극적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화형이 발전하여 장수가 죽을 때 콩 닳섬 팥 닳섬을 아기장수의 유언에 의하여 함께 묻어 주었더니 나중에 그 콩은 팥이 되고 팥은 군사가 되어 장수를 일깨우려 했으나 곧 관군에게 발각된 바 있어 거둬 죽는 비운을 겪는다고도 하고 있다.

제주 아기장수의 대표적 설화인 <홍업선설화>를 그 모티프를 통해 살펴 보자.

- ① 홍업선은 예월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쪼신을 삼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 ②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의심하여 잠든 사이에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힌 것을 확인한다.
- ③ 아버지는 아들이 나중 역적으로 몰릴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가위로 날개를 잘라 버린다.
- ④ 날개가 잘린 업선은 힘이 줄기는 했으나 그래도 보통사람은 당할

수 없는 역사로 살아 갔다.

⑤ 흥업선의 묘는 지금의 외도리 사만이에 남아 있다<sup>19)</sup>

여기서 보면 ①~②는 일반형 화소와 같으나 ③은 일반형에서는 살해하는 데 대하여 여기서는 날개를 잘라 버리는 소극성을 보여 준다. ④는 날개 잘린 장수로 현실을 받아 들여 그대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특징이 엿보이며, ⑤는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덤을 통하여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바로 이점이 제주 아기장수설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민중이 추앙하는 작품의 영웅성은 줄어드나 그러한 날개를 절제당한 충격을 극복하면서 그래도 장수라는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좌절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제주민의 정신적 자세를 읽을 수가 있다

<평대리 부대각>은 쌍둥이 아기장수 이야기다. 잠든 사이에 아우의 날개만을 자르자 형은 날아가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아우만 살아 남지만, 기세가 꺾인 대로 장수 행세를 하여 평범하게 수명을 다하도록 살다가 일생을 마감한다.<sup>20)</sup>

<날개돋은 아기장수>에서 보면 쌍둥아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자 불길함을 느낀 부모가 장군대좌형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재앙을 모면하려 하는데, 광증을 파헤치자 막 날개를 퍼려던 황새 한 마리가 꼬꾸라져 죽더니 그 쌍둥아도 함께 죽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 아이가 장수가 될 뻔 하였는데 부모의 조급함이 자식을 죽인 셈이다.<sup>21)</sup> <날개 돋은 밀양박씨>에서 보면, 제주시 외도동에서 아기 장수로 태어나 멸문의 위험을 피하여 아버지가 인두로 아들의 날개를 지저 없애서 죽음은 면하게 되었으나 그 지진 자국이 아물지 않고 병이 되어

19) 현용준, 《제주도전설》, <흥업선>

20) 현용준, 위의 책, <평대리부대각>

21) 김영돈 외, 《제주도전설지》(서귀포편), <날개돋은 아기장수>, <날개돋은 강정김씨자손>(《한국구비문학대계 9-3》)

스물아홉의 나이로 요절하게 된다. 여기서는 아예 날개가 자라지 못하도록 인두로 지저버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변모되고 있다.<sup>22)</sup> 제주의 영웅설화에는 상당수가 날개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아기를 뱀 아기엄마를 죽이고 배를 가르니 비늘이 달리고 날개 돋은 아이가 파닥거리며 뛰쳐나갔다고 하는 <김통정 장군>이나, 아버지 몰래 아들의 옷을 벗겨 보았더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혀 있었다는 <오찰방> 등이 그것이다.<sup>23)</sup>

제주도의 <아기장수 설화>는 매우 현실성이 강하다. 날개 돋은 장수를 죽여서 현실적 비장미를 강조하는 대신에 비록 날개가 잘렸지만은 죽음보다는 생존을 선택하여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수명을 마치는 운명 개척적 삶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김통정이나 이재수 같은 인물은 날개가 다렸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장수로서의 꿈을 안고 살아가다가 후에 장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현실과 싸우다가 몰락하는 경우이다. 제주도민들은 일찍부터 비극적 승화미에 안주하거나 의존적 생활과는 거리가 먼 자기 개척적 현실에서만 최선의 삶을 살아 왔다. 그러므로 비록 외세에 의해 날개가 잘리우는 충격을 맞보지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아기장수 설화>는 특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외세로부터의 힘을 거부하지 못하는 부모까지 거부하거나, 현실적 힘을 막아내지 못하고 날개를 잘린 채 장사로 살아가거나, 장수임을 숨기고 살다가 외세의 충격에 맞부딪쳐 죽음을 선택하는 아기장수의 모습 가운데서 제주인 특유의 역사 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다.<sup>24)</sup>

22) 현용준, 《제주도전설》, <날개돋은 밀양박씨>

23) 현용준, 위의 책, <김통정장군>, <오찰방>

24)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참조.

최래옥,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11집, 민속학회. 참고.

### 5. 오누 힘내기 설화 (窺察訪型)

<오누힘내기>는 오빠와 누이가 목숨을 걸고 힘겨루기를 하였다는 전통적 전승설화로, 일반유형의 기본 화소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어떤 홀어머니가 힘이 장사인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아 간다
- ② 오누이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지는 쪽이 죽기로 하고 내기를 하였는데, 오빠는 서울 갔다 오기(또는 성쌍기), 누이는 성쌍기를 한다.
- ③ 딸이 거의 이기게 되자 어머니는 딸에게 팔죽을 쑤어 권하며 의도적으로 성쌍기를 지연시킨다
- ④ 그러는 사이에 오빠가 돌아왔으므로(또는 성을 먼저 쌍유) 누이가 결국 죽임을 당한다
- ⑤ 아들은 자신이 비겁하게 이긴 것을 알고는 자살을 하고, 아들과 딸을 모두 잃게 된 어머니도 함께 죽는다

이 설화는 남매의 경쟁 구도 가운데서 어머니의 억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전통적인 부모들의 남아선호사상과 결부되어 있다. 누이의 부당한 죽음을 알게 된 아들과 어머니의 자책적 죽음을 통하여 잘못된 생각을 보상받으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오누힘내기설화>의 바탕은 장수설화라 할 수 있다 한 집안에 두 장수가 함께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연 대결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승부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하려는 제삼자(어머니)에게 있다. 일시적으로는 약자가 승리하는 듯하지만 제삼자에 의해 조종받은 약자의 반성으로 승부가 뒤바뀌면서 곧 비극적 파국이 초래된다. 아들과 어머니의 뒤 이은 죽음이 그것이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누이의 패배가 승리로 정당화된다. 제주설화에서는 오누힘내기의 변형을 <오찰방 설화>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 ① 오찰방의 부모는 소 열두 마리를 잡아먹고 딸(누이)을 낳고, 소 아홉 마리를 먹고 아들(동생)을 낳는다.
- ② 오누는 성장하자 힘이 장사였는데, 동생은 씨름판에서 당할 자가 없어 점차 오만해진다.
- ③ 동생이 힘자랑을 하자 누이는 몰래 남장을 하고 씨름판에 나가 동생을 이기고 오만함을 꺾게 된다.
- ④ 나중 동생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 누이임을 알고 오만함을 뉘우치게 된다.
- ⑤ 그후 아버지는 잠자는 아들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저 없앤다.
- ⑥ 그래도 아들은 현실에 순응하며 장사로 꾀꾀하게 살아간다.
- ⑦ 구월산의 도둑을 잡아오라 하자 그 일을 거뜬히 해내고 찰방벼슬을 얻는다.<sup>25)</sup>

여기서 보면, ①은 부모의 의도에 반해서 동생보다 누이가 우위에 선다. ②에서는 동생이 분수를 모르고 우위에 서려고 하며, 이러한 교만이 ③에서 보듯 누이에 의해 극복된다. ①~③은 결국 이 설화가 지닌 비극적 요인을 스스로 극복하고 화해의 구조로 변모를 보이는 데 그 특징이 있다. ⑤~⑦은 전 장에서 논술한 아기장수 모티프다. 누이에 의하여 비극적 요인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부모는 또 아들의 비극적 요인(날개)을 사전에 제거해 버려 그래도 장사로 현실 순응적 삶을 영위하게 되며, 도둑을 잡고 찰방이란 벼슬까지 얻게 된다. <오찰방 설화>는 <오누 힘내기>와 <아기장수>의 복합형으로 되어 있다. 다만 부모의 개입이 소극적이며 역으로 동생이 누이에게 패배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살아 남아 현실의 역사적 소임을 감당하고 있다. <장사 양태수>의 경우에도 비록 날개는 잘렸으나 왜선을 격파

25) 현용준, 《제주도전설》, <오찰방>

하는 등 여전히 현실에서 장사로서의 행세는 하는 데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누이가 동생보다 힘이 더 센 장수이고 부모가 누이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지 않는 점에서 보면 여성 우위를 인정하는 제주설화의 특이성이 엿보인다. 제주에는 여성 영웅설화들이 많으며 이러한 영향이 오늘날 까지도 남성보다 여성이 우위권을 갖는 풍습으로 고착되고 있다.<sup>26)</sup> <시흥리 현씨 남매>에서도 누이가 물 마시러 내려 온 사슴을 맨손으로 잡을 정도의 장사로, 변장을 하고 씨름판에 나가 동생을 이기고 그를 위기에서 구출해 내는 모티프가 삽입되어 있다.<sup>27)</sup> <사계리 김초시>나 <홍리 고대각> 설화도 같은 유형들이다 <태흥리 경김댁 며느리>에서 보면, 남자들이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들음들을 들어 여성 장사임을 확인하는 모티프가 보이고 있다.<sup>28)</sup> <강별장>은 장자못 모티프가 풍수 모티프와 결부되어 있는데 오누이의 선별의식이 아우를 선호하는 형제의식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sup>29)</sup>

<오늬힘내기 설화>의 구조 가운데서 죽음 모티프가 거세되고, 동생보다 누이의 능력이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지만은 오히려 아우의 현실적 착각을 깨우쳐줌으로써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주 <오늬힘내기 설화>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 6. 뱀 숭배 설화 (蛇神信仰)

제주지역 설화 가운데는 사신신앙과 관련된 작품들이 유별나게 많다.

26) 김영돈 외, 《제주도전설지》(서귀포 편), <장사양태수>

27) 현용준, 앞의 책, <시흥리 현씨남매>

28) 현용준, 위의 책, <태흥리 경김댁 며느리>

29) 현용준, 위의 책, <강별장>

30) 현길언, “힘내기형 전설의 구조와 그 의미”, 《현평효박사회잡논총》, 1980. 참고.

<고종달설화>에서 보이는 '차귀섬'도 원래는 뱀신, 즉 '蛇鬼' 신앙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sup>31)</sup> 제주 일원이 모두 이러한 '사귀문화권'에 속한다고 한다. <김녕백굴>은 그 대표적 작품의 하나이다.

- ① 옛날 구좌면 김녕리 동굴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다.
- ② 뱀이 주민들에게 흉년이 들게 하므로 해마다 한 처녀를 제물로 바쳐 굿을 했다.
- ③ 증증 때 서련이라는 판관이 부임하여 굿판에 나타난 뱀을 살해한다.
- ④ 무당이 서판관에게 화를 피하여 달아나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한다.
- ⑤ 피비가 쏟아진다는 군사의 외침에 본능적으로 뒤돌아 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만다.<sup>32)</sup>

이 작품은 <지하국대적제치형>에 속한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생지모티프, 뒤돌아보지 말라는 장자형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 ①~②에서의 뱀의 피해를 ③에서 서련이라는 영웅이 제치하지만, ④~⑤에서 결국 영웅도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죽고 만다. 결국 서련은 사신에게 보복을 당한다. 또 다른 채록에는 서련이 배를 타고 달아나다가 추자도 어룡의 무인도 '사서코지'에서 파선되어 죽는데 이는 사신이 따라와 복수를 한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김녕백굴>에는 뱀을 살해한 영웅이 '이삼만'으로 되어 있고, 이후로 정월 4일에 이삼만의 이름을 써 붙이면 뱀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설화가 발전하여 서련이 죽은 뱀을 항아리에 담아 뱀젓을 담아 놓았다가 임진란 때 원병은 명장에게 바쳐 조선

31) 제주에는 '遮歸'라는 말이 많다. 차귀도, 차귀산, 차귀당 등인데 秋葉隆(1932)에 의하면 이것은 '蛇鬼'에서 유래하였다 한다(石宙明, 《제주도 수필》, 보진재)

32) 김영돈 외, 《제주도전설지》, <김녕 백굴>

을 돕는데 크게 기여했다고도 한다.<sup>33)</sup>

<광정당 말무덤>에서 보면, 제주목사 이형상이 뱀신을 모시는 평성당을 철폐하려다가 탄 말이 갑자기 절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여 부당을 불러 곳을 하였더니 대망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였다.<sup>34)</sup>

이형상이 순행하여 평정당에 이르렀는데 이속이 하마도둑 여쭈었으나 듣지 않았는데 과연 말 발이 설어 들었다. 형상이 손수 그 덩에 이르러 무덤으로 하여금 밭을 죽여 세사케 하고 귀신이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요사스런 이무기가 나타나 사명 깃발을 독아로 붙여 뜯었다 이에 이무기를 베고 신당을 불살랐다.<sup>35)</sup>

위의 《탐라기년》의 <광정당설화>나 전술한 김녕사굴 ‘괴너깃또’는 재래적 사신의 대표적 기록이다. 그러나 ‘토산당신’이나 ‘칠성당신’은 오히려 외래적 사신으로 알려져 있다.

- ① 나주 금성산에 큰 뱀이 살았는데 부임하는 목사마다 죽게 된다.
- ② 걸추리선비가 목사로 부임하여 곳을 하자 뱀이 나타나므로 토막내어 죽인다.
- ③ 뱀신은 금바둑·옥바둑으로 변신하여 서울 종로 거리에 나타난다.
- ④ 토산리 강씨·한씨·오씨가 진상품을 싣고 서울에 갔다가 그 바둑돌(사신)을 줍게 된다.
- ⑤ 강씨 일행은 이를 고이 모셔 성산 은평리로 입도하는데, 토산으로 들어가 좌정하여 이 고장의 수호신이 된다.<sup>36)</sup>

33) 현용준, 앞의 책, <김녕 뱀굴>

34) 현용준, 《제주도전설》, <광정당 말무덤>

35) 김석익, 《탐라기년》 3권, <광정당>

36) 진성기, 《제주도무속논고》, 제주민속연구소, 1966. <뱀신앙과 제주도민>

여기서 보면 <토산백신>은 원래 육지인 나주에서 서울을 거쳐 성산으로 입도하여 그곳에 수호신으로 안착했음을 볼 수가 있다.

- ① 옛날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인은 부부가 되어 칠성님께 빌어 딸 하나를 얻는다.
- ② 부부는 벼슬살이 하는 동안 종에게 딸을 맡겨 두게 된다.
- ③ 장성한 딸은 집을 뛰쳐나가 중을 만나 임신을 한다.
- ④ 이를 불길하게 여긴 부모는 딸을 석함에 가두어 바다에 떠내려 보낸다
- ⑤ 석함은 함덕리 해안에 표착하여 해녀들에 의해 여덟 마리 뱀으로 발견된다.
- ⑥ 해녀들은 각각 뱀을 모셔 가 모두 부자가 되는데, 나중에는 성안 송대정 현감의 부인이 모셔가서 큰 부자가 된다.<sup>37)</sup>

여기서 보면 제석본풀이(당금아기) 모티프와 삼성신화 모티프가 혼용되고 있으며,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외래 사신으로, 이것이 사신신앙의 대표적인 <칠성본풀이>가 된다. 일곱 딸과 어머니 사신 가운데 막내딸이 밧칠성이 되고 어머니가 안칠성이 되며, 밧칠성은 집 뒤안 공지에 모셔져 곡식의 풍요를 맡고 안칠성은 고팡(곳간)을 차지하여 부를 지키는 신으로 가정마다 모셔진다.

<토산뱀>에서 보자. 감산리의 신랑이 토산리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함께 따라 온 뱀을 항아리에 넣어 땅 속에 묻어 버리자 토산리에서는 앓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이에 굶을 하고 토산리에서 그 뱀을 다시 찾아 가자 모두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설화는 토산 지역의 뿌리 깊은 사신신앙을 보여준다.<sup>38)</sup>

37)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사신칠성>

38) 현용준 외, 《제주설화집성》(남제주군), <토산뱀>

다시 <귀돌은 배염>에서 보자. 수산리 여인이 시흥리에서 조 서말을 빌려오면서 함께 따라온 뱀을 치마폭에 싸서 고팡에 모셨더니 집안이 갑자기 일기 시작하고, 반면 시흥리 부자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뱀을 모셔야 재화를 얻을 수 있다는 민속 신앙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풍년이 들려면 안뵈간에 나와 늪는다고 하여 뱀의 나타남을 통하여 흉풍년을 점치기도 하고 있다.<sup>39)</sup> 남원읍의 채록설화에는 표선면 토산리 여드렛당 사신을 위하여 안덕면 창천리 강씨덕에서 굿을 했던 이야기와 표선면 가시리 강씨덕에서 굿을 했던 이야기들이 채록되고 있어 이 지역의 집중적 사신신앙을 엿볼 수 있다.<sup>40)</sup> 육지에서 곡식을 싣고 제주로 오던 배가 관탈섬 근처에서 풍랑으로 침몰 위기에 놓였으나 그 위기를 넘기고 제주에 도착해 보니 뱀이 떼지어 물이 배에 스며드는 구멍을 막고 있었다고 하는 <뱀이야기>도 있다. 조상의 목숨을 구해준 옹포(한림읍) 장씨 집안에서는 지금도 생명의 은인으로 뱀을 극진히 모신다고 하는데, 이는 대마도인이 뱃전에서 새는 물을 막아 조상의 목숨을 구해준 전복의 은혜를 생각하여 지금도 전복을 먹지 않는다는 통신사들의 기록과 방사하다. 이밖에도 뱀설화로는 <구정승과 뱀아들>, <구렁이가 된 막내>, <뱀으로 환생한 막씨>, <굴치영감과 토산당뱀> 등 다양한 작품들이 채록되고 있어, 인간의 운명과 재화의 수호신으로서의 사신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다.<sup>41)</sup>

## 7. 풍수신앙 설화 (高典籍型)

제주에는 풍수설화가 많다. 거의가 조상의 음택을 잘 보아서 후손들이

39) 진성기, 《제주도 민담》, 제주민속연구소, 1976. <귀돌은 배염>

40)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사신>

41) 현용준 외, 《제주설화집성》, <뱀 이야기>의 4편

발복한 설화들이다. 옛 제주사람들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외딴 도서지역에서 태어나 거기서 일생을 마쳐야 했으므로 벼슬을 하거나 자손이 번창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땅에서 발복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제주의 세 명인이라고 하면 풍수에 고흥진(전적), 의술에 진국태(좌수), 점술에 문영후(현감)를 손꼽는다. 이들 세 명인이 전라도 땅 곡성 대감택에 가서 명당을 보아 주고 점을 치고 며느리의 병을 고쳐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설화 <문곡성과 명인들>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제주가 가난하고 척박하여 살기 어려운 고장임을 말해 준다.<sup>42)</sup>

<고전적설화>는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채록되는 유형의 작품 중 하나이다.

- ① 고생원은 서자로 태어나 목사 소두산과 함께 명도선생에게서 배웠다.
- ② 자기의 스승이 죽자 서귀포 토평리 '큰 다리굴'로 음택을 보아 정하였다.
- ③ 소목사가 제주에 부임하여 스승의 묘를 풍질에 썼다고 나무랐다.
- ④ 목사가 고생원을 꾸짖자 그는 생전에 자신이 서자라고 스승께 학대받은 양값음을 했다고 한다.
- ⑤ 그후 고생원은 소목사의 영전을 점쳐 예언하고, 그 덕에 서울에 따라가 전적 벼슬을 얻어 하게 된다.<sup>43)</sup>

여기서 음택을 통해 스승을 양값음한다는 것은 오히려 고전적의 신통술을 강화하는 모티프라 할 수 있다. 스승과 고전적, 소목사의 관계에서 보면 벼슬은 소목사가 높지만 음택 예언면에서는 고전적이 한 수 위임을 암시한다. 또 다른 채록에는 스승의 묘터로 풍혈을 정한 것이 평소

42) 김영돈 외, 《제주도전설지》, <문곡성과 명인들>

43) 현용준, 《제주도 전설》, <고전적>

가르침을 받을 때 송곳으로 자주 찢러(학대받음) 그 앙갚음을 한 것이라 하고, 육지에 나가 대가들의 음택을 보아준 댓가로 전적 벼슬을 얻었다고 하였다. 또 고전적이 제주목사를 따라 서울에 올라가 대가집 후손들이 발복할 명당을 보아주고 전적 벼슬을 하고, 다시 제주로 내려와 말을 키우며 풍수노릇을 하며 이름을 떨쳤다고도 하고 있다.<sup>44)</sup> <고전적부친묘>에서는 고전적이 서귀포 효돈리 월라봉에다 부친의 음택을 성한 후에 전적 벼슬을 하게 되나, 그후 이장을 하고 북촌 이만경 집에 그 터를 내어 준 후로는 자신의 집은 쇠하고 그 집이 대신 만경 원이 되는 영화를 누리게 된다.<sup>45)</sup> <오훈장과 정지관>에서는 정지관이 오훈장의 제자이지만은 풍수로는 스승을 앞섰다는 사실을, 묘를 쓰면 시체가 되살아난다는 ‘양시지지’ 등의 음택설화를 통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현지관>에서도 오훈장, 정지관, 현지관 세 사람의 사제관계와 현지관의 빼어난 풍수적 안목을 예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sup>46)</sup> <지관김귀천>에서 보면 부친 묘지로 구좌의 ‘조노기’, 자신의 묘터로 구좌의 ‘계여기 마루’, 손자의 묘지로 종달리의 ‘말산피’를 터 잡아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는데, 그 현손 가운데서 명도선생같은 인물이 태어나게 된다.<sup>47)</sup> 제주의 지형 자체를 풍수학상으로 보아 마라도는 시체를 묶어 놓은 형국, 산방산은 여인이 너울을 쓰고 시체 있는 곳으로 가는 형국, 모슬봉은 달구질하는 형국, 바꿈치오름은 상여형국, 영실은 혼백상의 형국 등으로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정은 문과 벼슬이 나도 조사해 버린다는 <내정의 문과조사>는 제주의 전형적 풍수설화이다.<sup>48)</sup>

중국의 주자도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시신을 모시고 제주에 달려와 길지 영실에 음택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이 발복하였다고 전하니,

44) 현용준 외, 《제주설화집성》, <고전적>

45) 현용준, 《제주도 전설》, <고전적 부친묘>

46) 현용준, 위의 책, <오훈장과 정지관>, <현지관>

47) 현용준, 위의 책, <지관 김귀천>

48) 현용준, 위의 책, <대정의 문과조사>



명당의식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는 여섯 명혈이 있으니 일사라(사라오름), 이개여목(개미목), 삼영실(주씨무덤), 사도주(돛대맹이), 오반득(남원 의귀리), 육반화(애월 별진밭)를 육음택이라 하고, 일구아랑(신제주), 이어호내(남원), 삼사반(창천 뱀바리), 사한교(한림읍), 오의귀(남원 의귀리), 육어도(애월 어도리)를 육양택이라 불러 오고 있다.<sup>49)</sup> 예컨대 육대명당 중 안덕면 창천리의 ‘蛇蟠’ 즉 ‘뱀바리’ 강씨집은 ‘십대지지’라 하여 십대(삼백년) 운세가 끝난 후에는 지기가 쇠하여지며 대신 이씨지지가 된다는 풍수설이 있었다. 이를 믿은 강씨 집에서 십대의 운세가 끝날 무렵 지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신 이씨 며느리를 얻어 부귀를 이으려 했으나, 결국 십대로 강씨는 망하고 대신 화순의 며느리 친정집이 융성하였다고 한다.<sup>50)</sup> <가시오름강당장>은 장자못 전설과 결부되어 있다. 육십 많은 강당장이 중(풍수)의 말을 따라 선산을 잘못 옮겨서 멸망하는 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가시오름 강당집에 흉사재화 들자고 하니 털뜬은 닭이 고기약 울고, 가죽 벗긴 개가 뽕공공 짓고, 불로 그을은 폐지가 달음을 단고, 앉혀놓은 술이 걸음을 걷는다<sup>51)</sup>

한편, <새비육>은 지관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음택을 옮겨 광중에 새가 날아간 후로는 자손이 쇠미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화인데, 명혈은 명지관이나 풍수에 의해 가려지며 후손이 발복하려면 풍수설을 신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예화라 할 수 있다.<sup>52)</sup>

49) 현용준 외, 《제주설화집성》, <제주 육대명혈과 주씨 무덤>

50) 필자가 안덕면 김한익씨와 ‘뱀바리’를 답사해 보았는데 강씨집의 큰 집은 헐려지고 지금은 넓은 터밭으로 남아 있으며, 지금은 이씨 맥이 소유권을 5형제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51) 이 노래는 강당장 집이 재앙을 입어 망해가는 사실을 노래한 것이다.

현용준, 《제주도전설》, <가시오름 강당장>

52) 현용준, 《제주도 전설》, <새비육>

이밖에도 제주에는 풍수설화가 많다. 고립된 도서지역에서 재반 열악한 조건들과 부딪치며 살아가자니 현실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음택을 가려 조상의 음덕도 입고 싶고 그러자니 자연 명지관의 출현과 택지의 선택이 기대된다. 이들에겐 육지에 나가서도 큰 벼슬살이 하는 것보다 풍수같은 기능 등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생계를 얻는 길이 더욱 소망스러웠을 것이다. 풍수설화의 발달도 이점에서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 8. 맺는말

지금까지 논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서인 제주지역 설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 보았다

첫째, 개국신화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고·량 부 삼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삼성신화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논외로 하거니와, 제주 및 그 부속 도서의 생성이 <선문대할망>이라는 여신과 관련되어 있어 이곳이 일찍부터 여성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선문대할망의 소박한 소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여 제주가 육지와 이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제주민의 삶의 현실과 육지 지향적 의식을 상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오백 장군봉 등 한라산과 관계되는 설화에서 보면 자연 조건으로 연유된 빈궁과 도덕성 간의 갈등과, 제주민의 삶을 주관하는 수호신으로서의 한라산 신령에 대하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종달설화>를 통한 피해의식과 배타의식을 들 수 있다. 외래자 고종달의 단맥설화의 다양한 변이현상은 침입자에 대한 거부감과 자기 방어 본능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고종달과 수호신의 대결에 농부가 후자 편에 가담함으로써 전자를 패퇴시킨다는 설화가 농경사회의 생명

인 수택 절단 모티프로 나타나고 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신령을 숨겨 준 농부의 슬기로 수택이 보존되어 풍요를 가져오며, 고종달은 귀국 조차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셋째, 제주에는 유별나게 많은 아기장수의 출현을 통하여 서민들의 소망과 지배 계층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아기장수의 거드랑이에 돌은 날개는 가문의 피화를 염려한 부모들에 의해 잘리워지지만, 일반형의 경우처럼 장사로 살아 남아 지역적 장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장수가 죽자 용마가 태어난다는 비극적 승화미가 줄어든 반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현실주의적 생활관을 엿볼 수 있다.

넷째, <오누힘내기설화>는 비극보다는 화해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누이와 동생 가운데 실제로 힘이 더 센 것은 누이이다. 누이를 억압하려는 어머니의 개입이 없고, 오히려 동생의 교만을 누이가 일깨워 주는 사실을 통하여 화해와 여성 우위의 통념을 읽을 수가 있다. <오찰방>의 경우처럼 <아기장수>와 혼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뱀설화(사신신앙)에 대한 뿌리깊은 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다. <김녕뱀굴>, <광정당>에서 서련과 이형상이 뱀을 복수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뱀에의 두려움과 섬김의 신앙을 유발하고 있다. <토산당신>으로서의 뱀은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수호신으로 모셔진다. <칠성당신>은 뱀이 재화 부귀와 직접 관련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본다. 뱀은 곧 조상신이요, 농경 어로와 관련된 풍요의 신앙적 대상임이 입증되고 있다.

여섯째, 풍수 발복설화를 통하여 현실의 고난을 극복 보상받으려는 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다. 제주는 좁은 땅이지만 풍수도 명월도 많아 조상의 선택된 음택을 통해 발복받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다. <고전적>, <정지관>, <현지관> 등에서 보면 음택과 관련하여 욕심 많은 부자의 멸망을 통해 도덕적 지향과 현실적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육지

인에 비해 벼슬은 못하지만 기능적 면은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주육대명철> 등은 음택의 선택과 후손의 발복을 연관시켜, 지금까지도 씨족관계에 얽힌 뿌리깊은 택지사상으로 남아 있다.

<참 고 문 헌>

- 張壽根, 《韓國의 神話》, 成文閣, 1961  
秦聖麒, 《南國의 傳說》, 一志社, 1968.  
——,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1976.  
玄容駿, 《濟州島 傳說》, 瑞文堂, 1976.  
——, 《濟州島 神話》, 瑞文堂, 1976.  
玄容駿 外, 《濟州說話 集成》, 耽羅文化研究所, 1985.  
玄容駿·金永敦, 《韓國口碑文學大系》(9-1,2,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83.  
金永敦 外, 《濟州道 傳說誌》, 濟州道, 1985.  
任哲宰, 《韓國口傳說話 9(濟州道)》, 평민사, 1976.  
《耽羅錄》(朝鮮王朝實錄 中), 濟州文化放送, 1986.  
《耽羅文獻集》,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